

사탄에게 절대 속지말고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로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후서- 에스겔 28:12-13, 데살로니가후서 2:1-2

정 윤 돈 목사님

* **겔28:12-13** 인자가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 **삼후2:1-2** 형제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약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고 영육 간의 깊은 절대불가능의 부분이 자유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직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와 절대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실천할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문제가 아닌데 큰 문제라고 속인다. 염려할 것이 아닌데 염려하게 한다.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아닌데 거기에 빠지게 한다. 심지어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가 생기고 인생을 망치고, 미움이 커져 상대를 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도 생긴다.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사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저런 일이 많다. 절대 사람의 말과 여론에 속으면 안 된다. 전도사가 되어 큰 교회를 갔는데 한 청년이 어떤 여자 청년이 전도사님과 사귀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 당사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다른 사람이 대쉬 할까봐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라. 너무 진실하게 말해서 정말 황당했다. 교회에서는 별 일이 다 있다. 교회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정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누구든지 살려야겠다고 생각해야 한다. 진짜 중요한 일은 조심해야 해서 말을 못한다.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다 살리는 자가 되어라. 사탄은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속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한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속여서 거짓말에 빠지게 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지옥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데 사탄은 모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절대 좋아하면 안 된다. 인생은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난 삶의 자연현상이다. 그것으로 엇나갈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자녀를 겸손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있다면 끝까지 붙잡으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이다. 오늘 본문말씀을 보면 너무 믿음이 좋아 일도 안하고 신앙생활만하는 게으른 사람이 데살로니가교회에 있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세상 사람도 말한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가장 잘 하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잘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버락치기가 중요한 것이다. 공부를 했다는 거니까. 속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속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1등도 있고 꼴등도 있다.

중요한 것은 버락치기하는 자세다. 성경에 나와 있다. 달란트가 많은데 묻어두는 사람이 꾸지람을 들었다. 게으르지 않고 받은 바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뭘을 굉장히 잘 할 필요도 없다. 그 자리에서 정직하기만 해도 된다. 마음 안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믿지 않는 사탄에게 속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300%만들라.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모든 응답이 여러분의 주변에 다 와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3절은 사탄을 두로 왕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13절을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라고 말씀하고 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에덴동산에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12절을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음악도 잘했다. 이 모습을 보고 하와가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탄의 모습이 뱀 뿐만 아니라 에덴동산에서 온갖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반면 아담과 하와는 걸친 것 없이 아무 것도 없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세상은 아름답고 명예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다. 사탄이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가는 것이다. 끝까지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드린다. 언약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정녕 죽으리라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탄의 말에 넘어가 버렸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라고 했다. 우리를 계속 속이는 악한 영이라고 했다.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돈도 주고 건강도 자식도 주니까 하나님을 믿죠. 빼앗아 가면 안 믿을걸요.’라고 하자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처럼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속지마라. 건강, 잃어버린 것, 자식 어떤 문제 때문에 절대 속지마라.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시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언약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어떤 경우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가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영적 문제를 이상한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니 빠지는 것이다. 복음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해야지 내 영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정확한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 복음을 따르는 빛의 제자가 되어라. 남이 봤을 때 이상하면 이상한 것이다. 저 분은 괜찮다하면 괜찮은 것이다. 빛이 되기를 바란다. 남이 봤을 때 나에게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마땅인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감사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없으면 나 잘못하고 세상으로 갈 텐데, 하나님 이 사랑해서 영적 문제, 삶의 문제, 갈등, 가정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를 주신 것이다. 절대 속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응답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언약만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오늘부터 응답이 오게 되어있다. 흑암이 꺾이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사탄은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했다. 그 아름다움에 속지마라. 나중에 보면 아름다움으로 교만했다고 말한다. 아름답고 잘난 사람은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교회는 못난 사람만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게 축복인 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란다. 13절을 보면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단정하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탄은 찬양하는 천사였다. 그런데 타락했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질투했기 때문이다. 시기, 질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보다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칭찬해 주어야.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배우고 칭찬하고 복음의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이다. 오늘 주제가 그거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다.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기를 축원드린다. 비교를 절대하지 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가정, 교회, 나라, 자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이니 속지 말고 고백하지 말라.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를 자랑하기를 바란다. 마귀는 ‘너 못생겼어, 못났어, 누구보다 못해, 가난해’ 이렇게 속여서 죽여 버린다.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든다. 아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탄은 우리를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사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탄은 아름답고 금, 은, 보석도 있고 지혜로웠지만 타락하고 쫓겨났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천국가면 다 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만한 것을 쌓는 시간이다. 문제가 생기면 감사하라. 하나님께 하물삼급을 주실 것이다. 응답과 축복을 받을 기회이니 문제 앞에서 감사하라. 쫓겨난 후 이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라도록 만들고 있다. 지옥같이 살게 만든다. 사탄을 낙심시키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성도를 보면 맘이 아프다. 사탄이 ‘염려해, 근심해, 남탓해, 시기, 질투해, 불평해, 감사하지마라’고 속이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우선 다시 한 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다. 로마제국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가장 큰 도시였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의 이름이다. 이 ‘데살로니케’와 결혼한 ‘카산드로스’왕이 (Kasandros, BC.388~297) BC.315년에 성을 재건하고 아내의 이름을 따라 도시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지었다. 주전146년에 마케도나 지방이 로마에 귀속되면서 ‘마케도나’ 속주의 수도가 되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160Km떨어져 있는 항구도시이며 교통의 요지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다음으로 세운 교회였다.(행16-17장)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짧은 시간에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였지만 사탄의 방해도 많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후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나치게 열정이 가득하여 금방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도 안하고 정상적인 삶을 안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지람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1.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1) 첫 째로,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사탄은 임박한 종말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다. 여호와중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여호와만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은 열심히 믿어라,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타락시킨다. 제철안식교 등 대부분의 대표적인 이단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였다. 다미선교회 이후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한다. 사탄은 잘못된 교리로 구원을 못 받게 한다. 소문을 듣고 참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된다. 잘못된 것은 갱신하고 개혁하면 된다. 아무리 좋은 교단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계속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남긴 것이다. 우리도 사탄에게 속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2) 두 번째는 사탄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탄에게 속을 때가 많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로마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로마가 고문하고 고통이 오니까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서 직장도 안 다니며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서밋이 되어 사탄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서밋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후대들을 세계화하려면 언어공부를 시켜야 한다. 올해도 겨울방학 때 할 것이다.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으면 램프들 다 보내고 싶다. 237나라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3) 세 번째로, 의심하게 한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예수님도 속였다. 사탄은 속인다. ‘너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 자녀 맞아?’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4) 네 번째는 유혹으로 속인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사탄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5) 다섯 번째로, 변장해서 다가온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사실 속이는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좋을 것 같고 복이 될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기도하면서 성경인도 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한다. 직업도, 일도 모든 것도.

(6) 여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마태복음 4장 6절에서는 사탄이 성경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비틀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안속이겠는가.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기를 바란다. 개혁주의 신학을 위해 주신 성경적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붙잡아라. 정윤돈 목사가, 어떤 지도자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틀린 것이다. 그러면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흑암 꺾어 주어야.

2.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들을 알아보겠다.

1) 첫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성육신, 십자가대속, 부활, 승천, 재림과 심판의 사역을 한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재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1)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살후4:17 끌려 올려)에 대한 모습을 가장 짧으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2)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서도 주님의 재림과 부활체로 변하는 성도들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말씀이 바로 성도들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썩는데 우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산 사람은 변화된다. 즉,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체로 계신다.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이다. 지금 죽은 사람들은 영으로

있다. 마지막 때 영과 육이 하나되어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의 것에 매이고 고민하고 속지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룬다는 말이다.

(3)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세의 현상과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과 휴거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도 말씀한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번개처럼 내려온다고 하셨다. 지구 어디에 있어도 볼 수 있다. 그리고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4)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중간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2)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복음의 바른 전통과 바른 신학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리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의 복음적인 전통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믿는 것이다. 영적 서밋이 되어 어느 분야든 빛의 땅에가 되어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로마도 정복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법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전통, 믿음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영육 간에 흠과 티 없이 우리를 지켜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영육 간에 부정함이 없도록 기도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 온전하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날마다 서밋타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예배에 정공해야 한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고 바른 성경적인 교리와 신학과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3) 세 번째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주님이 금방 오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세지말에 깨어서 나에게 주신 직장, 사명, 일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바란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하기를 조종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와 이유가 많다. 그 머리를 마귀머리라고 한다. 핑계와 이유가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4)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유, 핑계, 변명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목표인 땅끝,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치유, 현장을 정복하는데 이유가 없어야 한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 한 번도 전도, 선교 못 해보고 끝낼 수 있다. 우리는 전 세계에 RUTC복음 문화센터를 세워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는 선진지와 통일교 등 이단과 사비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야 한다. 우리는 3단체를 살리고 이를 능가할 산업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한다. 아프고 힘들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다. 이때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이다.

사탄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랄하게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램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해 귀한 언약과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절대 속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전도제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세계 237, 5000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